

코스피 7000선 가시권... '빚투'도 최고치 경신



코스피 '6615.03'...SK하이닉스 130만원 신고가 신용거래용자 잔고 35조 돌파 11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피가 사상 처음 6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처음 7000선 고지를 넘보고 있다. 이에 '빚투'(빚내서 투자)도 함께 최고치를 경신했다.

2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57.97p(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해 139.40p(2.15%) 오른 6615.03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특히 장 중에는 6657.22까지 오르며 기준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8880억원, 기관이 1조1020억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1조9740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717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삼성전자(2.28%), SK하이닉스(5.73%) 등 반도체주와 함께 LS ELECTRIC(12.80%)과 효성중공업(10.95%) 등 전력기기 주가가 급등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 유안타증권이 목표

주가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가운데 장중 한때 주가가 400만6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131만7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34p(1.86%) 오른 1226.1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9.29p(0.77%) 오른 1213.13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워 122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00억원, 800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은 1800억원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6101조 994억원(코스피 5421조5542억원·코스닥

679조5452억원)으로 600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작년 저점(4월 9일·2293.70) 당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1880조 1727억원에 그쳤다. 또 코스닥 시가총액은 329조8537억원으로 양 시장 합산 시가총액이 2210조264억원에 그쳤다.

블과 1년여만에 시장 규모가 2.76배로 커졌다.

증시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빚투의 지표로 보는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24일 기준 35조4630억원까지 늘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지난 23일 역대 처음 35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고점을 높였다.

지난 10일부터 11거래일 연속 상승

세다. 이달 들어서만 2조4700억원(7.4%)이 증가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4조5793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0조 8836억원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2일부터 일부 종목의 증거금률과 종목군을 변경·적용하는 등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등 제한 조치에 나섰다. 빚투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해 이란 전성 이전 수준을 훌쩍 뛰어넘자,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풀린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주차장에서 열린 '금융 직거래장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제공=농협 광주본부

농협 광주본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금융 직거래장터서 홍보부스·룰렛 이벤트 운영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주차장에서 열린 '금융 직거래장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로 광주서 부시장과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을 비롯해 지

역 농·축협 조합장, NH농협은행 대학 생 봉사단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기부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장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답례품을 소개하고,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통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기부 참여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

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송용 기자

농협 전남본부, 농축산물 소비 촉진 '앞장'

도청서 '동심달달' 캠페인...국내산 닭고기 활용 식단 제공

농협 전남본부는 27일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동심달달 4월 테마 함께하담' 행사를 열고, 전남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일 본부장과 황기연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남도 공무원 6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농협 전남본부가 협력해 추진한 것으로, 국내산 닭고기를 중심으로 해남 고구마와 무안 양배추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제공하며 전남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나눔축산운동본부와 목우촌이 물품을 지원하며 행사 의미를 더했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농협이 추진하는 동심달달 캠페인을 통해 전남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며 "전남도 역시 지역 농축산

물 소비 확대를 위해 농협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심전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된 동심달달 캠페인이 전남도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전남 농축산물 소비를 꾸준히 늘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심달달' 캠페인은 '담'의 받침 '르', 'ㄱ'이 숫자 2와 7을 연상시키는 점에 착안해 매달 27일 진행되는 테마마케팅이다. 전남본부는 지난 1월부터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며 '농심전심'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

이송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27일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동심달달 4월 테마 함께하담'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농협 전남본부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설명회 한국거래소, 내일 광주서 개최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관련 릴레이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가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상장기업의 원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첫 지역설명회가 열렸다. 이어 대구(28일), 광주(29일), 대전(30일)에서도 지역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신규 기업지배구조 공시기업에 대한 1대1 컨설팅 및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원활한 공시 제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중금리대출 1조 늘린다...금리 최대 5.20%p ↓

■ 금융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

총 31조9000억...카드사 사잇돌·생활자금대출 신설

금융권에 가계대출·예대올 혜택 등 규제 인센티브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등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정부는 사잇돌대출이 중신용자 위주로 공급되게 하고 금융사에 가계대출 규제 완화·예대올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많은 31조90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한다. 사잇돌대출은 예초 중신용자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저신용자로는

공급이 점점 늘어 정작 중신용자의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통해 올해 최대 1000억원이 더 공급되고, 사잇돌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도 최대 5.2%p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를 인하는 금리 인하로 연결된다.

대신 신용 하위 20%의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금융소외를 막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연내 총 12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햇살론의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새로 출시된다. 기존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로써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5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문권을 추가한다.

금융위는 이번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 개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신설, 취급기관 확대 등의 조치로 올해 3조6000억원이 공급되고 최대 5.2%p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권이 민간 중금리대출을 적극 공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계산법을 개선했다. 현재는 산식에 반영되지 않는 '대출원가'의 변동분을 매년 금리요건에 반영해 원가 절감 노력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연평균 금리요건이 최대 1.25%p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1(현행 금리요건보다 3%p 이상 낮은 금리)·중금리대출2(현행 금리요건)로 나누고, 중금리대출1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학연금, 정책학회 3년 연속 '우수정책상'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협력모델 구축 등 성과 인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은 최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정책대상 공공기관 우수정책 시상식에서 환경·사회·투명(ESG) 기반 지역상생 정책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공공기관 우수정책상을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정책을 발굴·수행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활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현해 왔다.

지역 먹거리·관광자원 정보를 담은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및 사회적경제기업 연계를 통한 판로 지원 병행 등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터피투명(ESG) 기반 지역상생 정책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공공기관 우수정책상을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정책을 발굴·수행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활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현해 왔다. 지역 먹거리·관광자원 정보를 담은 홍보

보 리플릿 제작·배포 및 사회적경제기업 연계를 통한 판로 지원 병행 등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터피투명(ESG) 기반 지역상생 정책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공공기관 우수정책상을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정책을 발굴·수행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활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현해 왔다. 지역 먹거리·관광자원 정보를 담은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및 사회적경제기업 연계를 통한 판로 지원 병행 등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터피투명(ESG) 기반 지역상생 정책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공공기관 우수정책상을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정책을 발굴·수행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활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현해 왔다. 지역 먹거리·관광자원 정보를 담은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및 사회적경제기업 연계를 통한 판로 지원 병행 등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터피투명(ESG) 기반 지역상생 정책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공공기관 우수정책상을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정책을 발굴·수행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활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현해 왔다. 지역 먹거리·관광자원 정보를 담은 홍보